

# ‘외국인 노동자돕기’ 두 불자회가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 40만 명 시대. ‘불법체류자’라는 멍에가 이들 절대다수를 묶어매고 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질병호소... 마땅히 하소연할 지원단체도 없고 불교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직 불자회 2곳이 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와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동문들로 구성된 불자법조인연합회가 바로 그들. 이들 단체는 업무 특성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법률상담 분야에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그림 / 김영민

### ● ‘아픈 사람은 이곳으로 오라’

외국인 노동자의 20%가 풀려 있는 경기도 부천시. 13일이면 불교계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무료진료소’가 이 지역 석왕사(주지 영담)에 문을 연다. 운영책임은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가 맡고, 석왕사는 30평 규모의 장소를 제공한다. 진료과목과 의료진도 구성됐다. 과목은 치과,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료 수요가 많은 것부터 마련됐다. 진료진은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총 10명이 꾸려졌다. 선재마을의료회는 적어도 부천진료소를 1차 진료병원 수준에 맞추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선재마을의료회가 왜 부천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를 개원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다. 이는 선재마을의료회가 그

### 석왕사에 불교계 첫 전용무료진료소

선재마을의료회 불자법조인연합

### 체임·산재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 나서

간 서울 강남 봉은사진료소에서 간헐적으로 벌어온 외국인 노동자 진료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의로서비스를 제공코자 이곳에 진료소를 연 것이다.

특히 이 지역 외국인 노동자 중 70% 이상에 달하는 태국·스리랑카·미얀마·몽골 등의 불교국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작은 불교병원’을 열었다.

### ● ‘법률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장 옥죄는 것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보상 등의 법적 문제. 원인은 전적으로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로 이렇다할 법적 대응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이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불자법조인연합회가 이 문제에 뛰어 들었다. 법

률사무소 ‘사람과 법’ 대표 이홍주 변호사가 주도 한 이 불자회는 매일 한 차례씩 경기도 안산공단으로 법률 상담에 나선다. 주로 밀린 임금과 산재 보상금 등을 받아주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통역과 서류작성을 담당할 실무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자법조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상담과 관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가 운영하는 ‘김포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등 불교 NGO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이홍주 변호사는 “직장·직능불자회가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ews.com

## 우리불자회는요

### 서울 성북경찰서불자회

‘경찰’이라는 단어만 내밀어도 경직된 분위기에 거리감을 두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불회’하면 부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곧장 눈치를챌니다. 그렇습니다. 성불회(佛會)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불자들이 지난 2000년 4월 창립한 순수 직장인 불교 모임입니다.

경찰은 직업적 특성 자체가 국가와 사회, 시민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에

가 실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릉수해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했고, 연말이면 소년·소녀가장 돕기, 어려운 직장동료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렇게 성불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승 스님들 덕분입니다. 경승실장이신 성북구 정릉동 내원사 주지 경수 스님을 비롯해 관내 여덟 분의 경승위원 스님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문사 도인 스님과 보문사합창단 보살님의 음성

### “범우들은 잘못 일깨워 주는 고마운 인연”

### 항상 下心자세... 범명 불려주기운동 펴



◇성북경찰서 불자회원들이 올 부처님 오신 날에 봉행된 수계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것을 서원하고 있다.

로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범우들은 이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고마운 인연들’이라고.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왕성한 신행활동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역 사찰 순회법회, 매년 떠나는 성지순례는 불교의 해안을 넓히고 수행정진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 회원이 법명을 다시 받는 수계법회도 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자기의 법명을 다시 받는 수계법회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제자로서 불퇴전의 서원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뿐인가요? 우리 불자회의 찬불

공양은 지친 심신을 보듬어 주는데 충분했고, 특히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유치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법을 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불회는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근무에서도 항상 하심(下心)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범명 불려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서로의 불성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불제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펼쳐는 운동입니다. 이와 함께 전·의경포교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매월 전·의경들의 생활을 파악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인연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 김두식 회장

## 동아시아 불교문화벨트 구축

### 8개국 교수 불자들 내달 백담사서 학술대회

### 아시아·세계 교수불자연합회 결성도 추진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또 기조발표에는 박세일(서울대), 백경남(동국대) 교수가, 소주제는 인도 켈케타 대학 디팍 쿠마르 바르

우나(Dipak Kumar Barua) 교수, 스리랑카 불교·팔리 대학 올리버 아베나야케(Oliver Abeynayake) 교수 등 국내외 30여 명의 석학들이 나선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특성을 한 자리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참가국 교수불자들은 대승 및 남방불교권별로 자국의 불교 전래와 현황을 실은 ‘나라별 리포트’를 제출하고, 전공 분야별로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공동대안을 모색한다.

또 대회에서는 아시아교수불자연합회 창립식과 세계교수불자연합회 결성 예비모임도 갖는다. 김철우 기자

### 우리 모임에선



#### 법현 스님 초청 강좌

우리는행 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10일 본점 회의실에서 <알기 쉬운 부처님 말씀>을 주제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강의를 듣는다.



#### 동화사서 연합법회 열어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사진)는 13일 대구 동화사에서 2003년도 정기연합법회를 열고, 주지 지성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 지안 스님 불교신행 특강

마산시청불자회(회장 박일준·사진)는 6월 27일 영축불교대학에서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에게 ‘현대사회와 불교신행’이란 주제로 법문을 들었다.



#### 원각사에서 경전공부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천승범·사진)는 6월 26일 광주 원각사에서 주지 도재 스님으로부터 예불분과 <반야심경> 경전 공부를 했다.



#### 선우 스님 초청 사경 법회

경향청불교회(회장 박재진·사진)는 6월 26일 서대문구 분청 법당에서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선우 스님 초청, ‘사경’ 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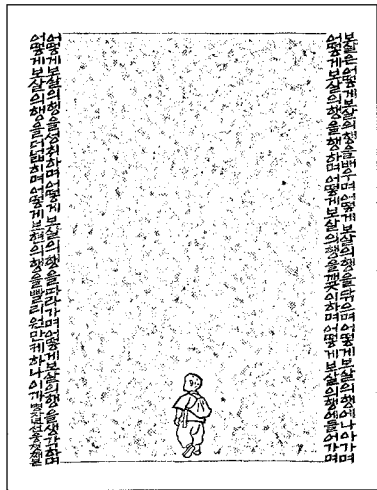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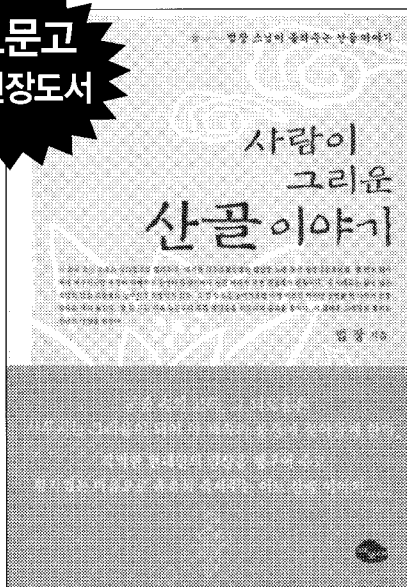


#### 개원 기념 산사순례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사진)는 1일 개원기념 오대산 적멸보궁, 상원사, 월정사 등 삼사순례법회를 다녀왔다.

각박한 현대인의 일상을 행구어 주고  
향기있는 마음으로 축축히 적셔주는 산골 이야기...

교보문고  
7월 권장도서



사람이  
그리운  
산골 이야기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의 얘기, 자연에 대한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적은 글 - **종인일보** | 홀로 수행중인 운수행자의 탁 트인 이야기가 속세인의 가슴을 친다. - **문화일보** | 스치고 잊혀졌을 법한 자갈한 인연들을 살뜰히 가꿔온 이야기가 많다. - **한겨레21** | 나를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는 너무나 진솔한 만행은 행복하다? - **불교신문** | 운수행자로 살아가는 길을 결정하기까지 고난했던 과거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은 심금을 울린다. - **법보신문** | ...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론 삶이 사실 그대로 꿈틀거린다. - **오마이뉴스**

저자 사인회 일시 : 2003년 7월12일(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교보문고(종로점)

전화 (02)2272-7881 팩스 (02)2269-4179

